

새한미디어, 2차전지재료 사업 진출

2006년부터 양극활물질 생산 예정 ... 2008년 매출액 700억원 예상

새한미디어(대표 이석희)가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사업을 본격 추진해 2006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.

새한미디어는 2004년 말까지 양극활물질의 사업성 검토 및 연구개발을 완료하고, 2005년부터 생산설비를 구축해 2006년 이후 양극활물질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, 구체적인 생산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.

양극활물질은 음극활물질, 전해액, 분리막과 함께 2차전지의 핵심재료로 2차전지재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
국내에서 한국유미코아, 제스이켄 등이 양극활물질을 생산해 국산화율이 약 50%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기업들이 세계적인 수급타이트에 발맞춰 증설에 주력하고 있어 2006년 새한미디어의 사업참여로 국산화율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.

양극활물질 국내시장은 2004년 약 1500억원으로 추정되며 새한미디어는 양극활물질이 양산되는 2006년 300억원, 2008년 7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CMRI(화학경제연구원)는 2차전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양극활물질 시장이 “2006년까지 연평균 30.6%, 2010년까지 약 27.4% 성장할 것”으로 전망했다. <주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9/23>